☞ 17면에서 계속

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중요합니다. 법당에 자주 나가되 끈질기게 날짜와 시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백일만 지구가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나요? 한날 한시, 일분 일초도 떠나지 않게 되는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걸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여여하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 여북하면 여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그대로 컴퓨터에, 과거의 입력이 된 컴퓨터에다가, 주인공이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편리하게 맡겨놓고 여여하게 사는 마음법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참선을 한다하고 그냥 꿇어앉아서, 지금 일분 일초가 바쁜 세상인데 구부리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아, 가서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똥누는 것도 참선, 자는 것도 참선, 사랑하는 것도 참선 아, 모두 참선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면 잘 이끌고 살아 나가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를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서로 다복하고 아무리 나쁜 형편이라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라 이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은 것도 높고, 얕은 것도 높고, 풀 포기는 풀 포기대로 높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독존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높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길이 바로 불법이다는 것을 진실히 믿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내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성형수술에 대해서…

문 저는 군복무 중에 스님의 책을 보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스님께 질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어릴 때 장난을 하다 다쳐 흉이 생겨서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 자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어떻게 다시 수술을 해서 저의 콤플렉스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에서 벗어나 남들과 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여쭙니다

답 어느 난장이가 스님이 되려고 한생각을 내서 입산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난장이라고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주니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뭘 하나, 모습이 이래서 중도 될 수 없는 몸이라면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러고 죽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죽은 그 자리에서 오 백년이 지난 지금도 난장이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난쟁이가 스님을 보더니 쫓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 제발 저의 모습을 벗겨주십시오. 저는 오 백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습을 벗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하고 매달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왜 오백년 전 난장이의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나?"하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붙들고 있던 마음은 홀연히 놔지고, 그 모습을 다시금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천도가 됐다 이 소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술을 정말로 해야할 것은 바로 '남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하고 당당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장점도 단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외모에 치우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깎고 다듬고 조성을 한다해도 허망한 욕심에 지나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나의 마음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도 절대 긍정할 수 있는 대장부다운 성품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세상은 더욱 더, 외모보다는 마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품이나 능력으로 대우받는 시기라는 것은 법우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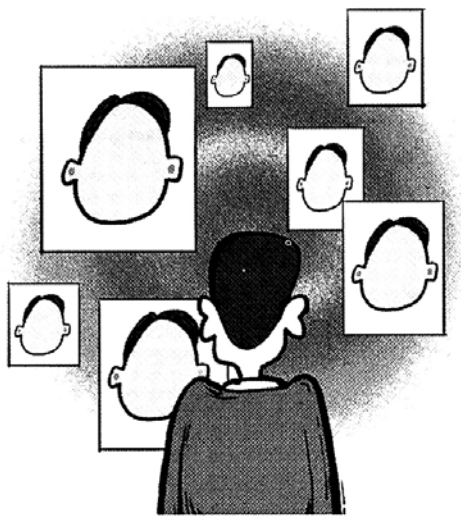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근본에 맡기세요

모든 것 대치하며 살려면…

문 모든 것을 대치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사시는 걸 보면, 소승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는데 좀 넓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지 않는 게 됩니다. 만약에 윗사람들이 나를 자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편의 마음을 조절하질 못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윗사람들의 마음과 둘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통신이 돼야, 즉 말하자면 줄을 그냥 탁 대는 대로 전력이 흘러서 탁 불어서 불이 번쩍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 전화 코드를 끼워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려니 통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금방이라도 닥쳐오는 것을 해결하려면 전화에다 대고선 통신을 해야 통화가 돼서 그걸 전부 다 알아듣고 소임을 제대로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죠? 우리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요. 스스로 짊어진, 과거에서부터 누적돼서 입력된 거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서 넣는 입력이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대로 자꾸 나오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찰나찰나 살아나가는 생활 아닙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살림살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합니다. 한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대로 중생의 모습이라고 했으니 바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사량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느니, 이렇게 돌아가느니 저렇게 돌아가느니 하면서 사단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이 없이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앞뒤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문득 옆의 사람이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서 들어올려 주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살리는 것이요, 또 저 먼 산을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비가 오게 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게끔 한다면 또한 보살행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해서 누가 꺼뜨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네들은 좋아할 거다 이겁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도리의 법칙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등동물로서 첨단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놓으라는데도 못 떼어놓는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 잘 이끌어 가는 게 종교
한 생각 뛰어 넘으면 여여함이…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꼭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힘을 기르기에 전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길어야 백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설사 수천만 억의 재산을 모으고, 수 백만 명의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한들 자신의 근본을 놓치고 산다면, 진정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몸의 편안함을 줄 수 있고 허영심을 한때 충족시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물질의 허망함을 좇지 말고 영원한 마음의 세계로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해서 사라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모든 생활하는 것을 근본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해야 만이 나오는 모든 의식들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법우님에게는 지금 현재 닥친 외모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가슴 속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 보는 것·듣는 것·말하는 것
> 만나는 것과 가고 오는 것
> 모두가 고정된 것 하나 없이
> 찰나찰나 化해 돌아가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
圓 梵 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귀의삼보 하옵고,
諸方寺庵 주지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메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세상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발원!!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불암사 범종에
자동시스템을 설치. 춘하추동 사계절
조석예불 시간과 정오에 인적이 있고 없고,
크나큰 종에서는 치는 이 그림자도 없이
원범음이 삼세를 뚫어 오늘 지금까지
또 다함없는 미래까지 울려 퍼져
모든 중생고는 사라지고 해탈의 법열이
충만함이여!! 사중외호와 불사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스님들께
작으나마 편의를 드렸으면 하고!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구리3반 48번지
부영공업사 대표 신 현 직 두손모음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금세기 최초공개
고차원 치유에너지 활용법전수생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암,난치의 제질병 비만 피부 및 피부미용 등 비정상 세포를 부작용 없이 체외로 배출시키고 변형된 체세포를 복원시키는 비젼의 학문과 능력이 전수 된다.

자 격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서 일반인, 주부, 남여 직장인, 가족의 난치병 관리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해외 이민 희망자

강좌개설 타시도 거주반, 속성반, 직장인반

교육과정 및 능력전수
약, 약초, 뜸, 침, 수술, 氣등의 도움없이 고차원 치유에너지 활용법 종교와 전혀무관함.

본 학문을 전수받고 난 후의 당신의 능력은?
예1) 중증의 비만인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하루 1~2시간씩 6일을 교육시키면, 제아무리 뚱보라 할지라도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며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기 시작한다 부작용도 없다. 요요현상도 없다. 오히려 피부가 아름다워진다
- 믿어지시겠습니까? 기적같은 일입니다 -
예2) 난치병까지 상대가 원상회복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수있다
※ 이학문을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선택된 희망자에게 전수하는 것임.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8-1315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研究學會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음테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어시어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련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인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림사)

* 오라진동센션 (미국 오라시스템사 주문OEM)
* 광안경(투명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림사)
* 타이베릭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림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